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굴드판 전집 16권 1862, 영문)

오웬 ·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권위·자증하는 빛·능력에 관하여』(1659) 6장. 굴드판 전집 16권(1862). 본문에 343쪽 쪽머리가 보이므로 그 전후에 해당하며, 정확한 쪽 범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들에서 성경이 스스로 내는 빛과 능력으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논증했다. 이 장은 그 논증을 전제로 깔고 '뒤따르는' 보조 논증 두 가지를 내놓는다. 첫째는 성경 교리의 성격이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는 세 질문(예배, 화목, 참된 복)에 성경만이 끝까지 답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처럼 처음엔 이성이 움찔하는 신비가, 따져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성경 전체가 이루는 일치와 목적이다. 이 정도의 일치를 만든 저자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사람을 속이는 마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한 교리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다. 오웬은 끝으로 이런 고려들이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다만 시련과 유혹의 때에 믿음을 붙들어 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한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절 목록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누었다.)

📜 1. 들어가며 — 개연적 논증의 자리

오웬은 앞 장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려고 흔히 쓰는 논증들을 일부러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솔직한 생각은 이렇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항'이다. 그래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약한 근거로라도 성경 곁에 머문다. 그 근거만으로는 버티지 못하지만, 더 단단한 근거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그것이 붙잡아 준다. 오웬은 더 나은 근거로 이미 설득한 터이니 그들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지 않겠다고 한다. 앞에서 제시한 증거가 전제된다면, 뒤따르는 고려들은 여러 때에 큰 쓸모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는 성경 교리 자체의 성격으로, 성경 안에 '타고난' 근거다. 둘째는 성경 전체의 설계와 운영으로, 더 '바깥에서 이성으로' 따져 보는 근거다.

1. 성경의 권위는 '믿음의 조항'이다
2. 개연적 논증은 '굳은 의견'까지만 이른다
3. 그래도 약한 근거를 일부러 허물지 않는다
4. 앞 장의 자증 논증이 전제다
5. 두 논증: 교리의 성격, 전체의 설계

> **(이 절에는 오웬이 든 구절이 없다)**
> 논증의 성격과 자리를 정하는 서론이다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두고, 개연성에만 이르는 논증을 늘어놓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 2. 첫째 논증(1) — 영혼의 세 가지 얽힘에 꼭 맞는 교리

성경 교리는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사람의 모든 얽힘과 혼란에 '보편적으로' 꼭 맞는다. 짐승처럼 무디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혼란을 풀고,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교리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 영광스러운 효력으로 사람에게 밀려드는 교리라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밖에 없다. 오웬은 그 얽힘을 세 가지로 꼽는다. ①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예배할까. ② 본성적으로 느끼는 죄책을 어떻게 씻고 하나님과 화목할까. ③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 데 이를까. 모든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 '앞선 관념들', 세계 모든 종교의 역사, 고대와 당대 철학의 목표가 그것이다. 오웬은 이 점은 다른 책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한다. 성경은 이 질문들에 더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답을 준다. 그래서 이 세상 신에게 눈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은 “찾았다!” 하고 외치게 된다.

1.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의 혼란이 있다
2. 세 질문: 예배, 화목, 참된 복
3. 양심·종교사·철학이 그 혼란을 증언한다
4. 성경 교리만 모두에게 끝까지 답한다
5. 그런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 **히브리서 4:13**
> (보충) “우리가 상대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오웬의 표현이 나온 구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한다
>
>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고린도후서 4:4**
> (보충)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린 사람만 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단서
>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로마서 1:21-22**
> (보충) 사람이 스스로 찾다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는 진단
>
>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것이다.” (라틴어 인용. 베르길리우스의 시구를 빌린 것으로 알려짐)

“다른 데서 헛되이 찾다가 생각만 미련해졌던 그것을, 나는 찾았다!”

📜 3. 첫째 논증(2) — 속죄의 예,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

오웬은 세 질문 가운데 화목과 속죄를 예로 든다. 사람들은 죄책을 덜어 보려고 온갖 끔찍한 방법을 지어냈다. 무엇인들 발명하지 않았고, 무엇인들 하지 않았고, 무엇인들 견디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평생 두려움과 속박 속에 살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 교리는 영혼을 달래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다가온다. 그 교리는 먼저 영혼을 놀라게 하고, 다음에 정복하고, 마침내 사로잡아 배부르게 한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찾았고 이것 때문에 앓았지만 그것을 몰랐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3장 21-26절에서 이 교리가 얼마나 충만하게 터져 나오는지 보게 된다. 예배와 장래의 복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헤매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추론이 어둡고 거짓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성을 사로잡아 영혼을 잠잠하게 한다. 옛 로마 세계가 그렇게 정복되었고, 이슬람 세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되리라고 오웬은 말한다. 이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저 혼란이 어김없이 되돌아오는지 보게 될 것이다.

1. 사람의 속죄 방법은 두려움만 남겼다
2. 그리스도의 피, 영혼을 달래는 빛
3. 놀라게 → 정복 → 사로잡아 배부르게
4. 로마서 1:18~3:26이 그 흐름이다
5. 거부하면 혼란이 다시 돌아온다

> **로마서 1:18**
> 오웬이 직접 지목한 출발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진단이다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21-26

오웬이 직접 지목한 절정.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가 죄책 문제에 주는 답이다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1

(보충)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오웬의 요약 표현이 나온 구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히브리서 2:15

(보충) 평생 “두려움과 속박” 속에 살았다는 표현과 닿는 구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 교리는 먼저 영혼을 놀라게 하고, 다음에 정복하고, 마침내 사로잡아 배부르게 한다. 그들이 찾던 것이 이것이었다.”

“이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

📜 4. 첫째 논증(3) — 처음엔 움찔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신비

성경 교리 가운데는 너무 높고 깊어서 처음 들을 때 본성이 움찔하는 것이 있다. 본성은 뒷걸음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한다. 자기보다 높고 크고 탁월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따져 보면 본성은 결국 굴복한다. 이 교리들이 헤아릴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미 받아들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대는 관계 자체가 무너지거나 오직 무서운 것이 되고 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죽은 자의 부활, 거듭남 같은 교리가 그렇다. 처음엔 본성이 놀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말쟁이의 소리”라 하거나, 헬라의 지혜자들처럼 “미련한 것”이라며 맞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의 눈이 조금 단단해지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해의 영광을 똑바로 보지는 못해도,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영광이 거기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1. 어떤 교리는 이성을 넘어선다
2. 첫 반응은 놀람과 거부다
3. 예: 삼위일체·성육신·부활·거듭남
4.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5. 이성은 결국 더 높은 영광을 고백한다

> **요한복음 3:9**
> (보충) 거듭남 앞에서 니고데모가 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를 본성의 첫 반응으로 인용
>
>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보충)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말쟁이”라 한 아테네인. 신비를 조롱하는 반응의 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고린도전서 1:23

(보충)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 헬라인. 지혜자들의 거부를 보여 준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성은 이 해의 영광을 결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지만,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높은 영광이 거기 있음을 고백한다.”

📜 5. 삼위일체 교리의 요약

본성이 처음 보고 가장 크게 뒷걸음치는 교리가 삼위일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진다. 오웬은 성경이 이 교리를 '아껴서' 말하지만 분명하고 또렷하게 전한다고 인정한다. 그가 정리한 요지는 이렇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본성, 곧 존재가 하나다.
-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 탁월함(선, 거룩, 공의, 능력, 영원, 전능, 편재)은 그 한 본성에 속하고, 오직 그분께만 속한다.
- 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
- 셋은 한 인격을 부르는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니다. 한 본성의 서로 다른 속성도 아니다.
- 셋은 '하나와 또 하나와 세 번째'로서 똑같이 그 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남에게 나눌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서로 실제로 구별된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셋이 모여 하나 된 것'이 아니다. '하나 안의 셋', 곧 같은 본질 안에 있는 세 위격이다. 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엄밀히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지 않는다. 본질은 각 위격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 셋이라는 수에 담긴 위격들의 구별만을 가리킨다.

1. 성경은 삼위일체를 아끼되 분명히 말한다
2. 본질은 하나, 모든 신적 완전은 그 하나에
3. 셋은 이름도, 속성도 아닌 실제 위격
4. 각 위격이 똑같이 온전한 한 하나님
5. '셋의 연합' 아닌 '하나 안의 셋'

> **(이 절에는 오웬이 든 구절이 없다)**
> 오웬은 교리의 '요지'만 정리한다

> **신명기 6:4**
> (보충)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요지의 대표 근거
>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마태복음 28:19**
> (보충) 아버지·아들·성령의 '한 이름'. 하나와 셋을 함께 보여 준다
>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는 셋의 연합이나 셋의 하나 됨이 아니라, 하나 안의 셋, 곧 같은 본질 안에 있는 세 위격이다.”

📜 6. 삼위일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진다

오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선하심과 그 열매를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러난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다. 이 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오가는 일의 전부다. 그런데 둘 다 삼위일체에 싸여 있어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참여할 수 없다.

(가) 은혜의 영원한 샘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지혜, 곧 말씀의 영원한 일로서만 이해된다. 그 뜻을 이루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에 담겨 있다. 아들이 그 일을 맡아 이루겠다고 하신 언약이다. 삼위일체를 빼면 '아들 안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은혜의 뜻'도, 그것을 이룰 언약도 사라진다.

(나) 그 뜻을 실제로 이루는 일은 아들이 낮아져 사람이 되신 데 있다. 영원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바닥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은혜가 전달되는 모든 수단이 무너진다. 그리스도가 치르신 속죄의 값과 그분의 의도 함께 무너진다.

(다)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스스로 움켜쥘 수 없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안겨 주신다. 그 성령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지신 분이다. 그러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효력 있는 일하심도 부정하는 셈이다.

(라) 사람 쪽의 순종도 마찬가지다. 예배를 받으시는 근본 대상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위격들은 '구별된 위격'이어서가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받으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각 위격은 구별되게 예배받으셔야 한다. 믿음, 사랑, 감사, 모든 순종이 그렇다. 오웬은 이것을 아버지와는 사랑으로, 아들과는 은혜로, 성령과는 복음의 특권으로 나누는 교제를 다룬 책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1657)를 가리킨다.

(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일을 이 틀 위에서 말한다.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신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일하신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며, 창조와 구속에서 각각의 몫을 하신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만 알려지고 예배받으신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으로만 알려지신다.

이것을 깨닫은 영혼은 하신에 이르되,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장 비틀거리게 했던 바로 그 진리가 이제 그를 가장 굳게 붙든다. 그 진리가 꼭 필요하고, 능력 있고, 하늘의 탁월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1. 교제 = 하나님의 은혜 + 사람의 순종
2. 선택과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3. 은혜의 바닥은 성령에 의한 성육신
4. 은혜의 적용은 보내지신 성령의 일
5. 예배도 삼위를 따라 구별되게 드린다

> **디모데후서 1:9**
> (보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의 뜻”. 아들 안에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과 닿는다
>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 **누가복음 1:35**
> (보충)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은혜에 참여하는 바닥이다
>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요한복음 15:26**
> (보충)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 은혜를 적용하는 분이다
>
>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 **요한복음 17:1**
> (보충)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화롭게 하심

요한복음 16:14

(보충) 성령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잠언 8:30-31

(보충) 창세 전에 아버지 곁에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오웬의 표현과 닿는 구절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3

(보충)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만물을 지으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4

(보충)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마태복음 11:27

(보충)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려지심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18

(보충) 아들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예배의 삼위일체적 틀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은혜가 전해지는 모든 수단이, 그리스도의 속죄와의 전부와 함께 땅에 떨어진다.”

“처음에 그 깊고 신비한 영광 때문에 그를 가장 비틀거리게 했던 진리가, 이제는 그 필요와 능력 때문에 그를 가장 굳게 붙든다.”

📜 7. 둘째 논증 — 성경 전체의 일치와 목적: 하나님이냐 마귀냐

흔히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언하는 근거로 성경의 '일치'를 든다. 각 부분이 서로, 그리고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오웬은 이것이 적어도 한 가지는 반박할 수 없게 보여 준다고 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같은 원천, 같은 저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 저자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전하려는 것 전체를 한눈에 품을 수 있는 분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졌는데도 성경은 하나의 정신과 설계와 목표를 지닌다. 스스로와는 완벽하게 들어맞고, 다른 모든 것과는 뚜렷이 다르다. 그런 저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치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원천이라면 그 종류에서 극단, 곧 최고의 선이거나 최고의 악이어야 한다.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그대로라면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자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드러내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주장에 들어맞는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신성모독의 목적을 가졌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게 하면서 실제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의를 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수고를 쏟아부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뿐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악에서 그렇게 완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무엇이 남아 있고 선과 악의 구별이 남아 있는 한, 아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토록 거룩하고 순결한 교리, 선하고 옳고 칭찬받을 모든 것을 끝까지 길러 주는 교리가 영원히 악에 굳어진 자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그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을 속이고 망하게 하려는 가장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1. 다양한 전달 속 하나의 정신과 목적
2. 일치는 지혜로운 한 저자를 증명한다
3. 그 저자는 최고의 선이거나 최고의 악
4. 거룩한 교리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다
5. 남는 저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뿐

> **예레미야 23:36**
> (보충)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온 구절. 성경이 스스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
>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 **시편 49:12**
> (보충) “멸망하는 짐승”과 사람의 구별. 선악 분별이 남아 있는 한이라는 전제와 닿는다
>
>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빌립보서 4:8**
> (보충) “옳고 칭찬받을” 모든 것. 성경 교리의 거룩한 열매를 묘사하는 표현과 닿는다
>
>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그대로라면,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 자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 말고는 어떤 저자도 인정할 수 없다.”

📜 8. 맺음 — 이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다

오웬은 장을 짧게 맺으며 서론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이 장의 고려들은 말씀 속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동의하는 믿음의 바닥이나 기초가 결코 아니다. 그 기초는 앞 장들에서 말한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이다. 그러나 그 기초가 놓여 있다는 전제 아래서는 이 고려들도 쓸모가 있다. 시련과 유혹, 그와 비슷한 어려운 때에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결국 이 장의 논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사람을 위한 버팀목'으로 읽어야 한다.

1. 이 고려들은 믿음의 기초가 아니다
2. 기초는 성경 자체의 빛과 능력이다
3. 기초 위에서 시련의 때에 버팀이 된다

> **(이 절에는 오웬이 든 구절이 없다)**
> 논증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결론이다

"이 고려들은 우리 믿음의 바닥과 기초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서, 시련과 유혹의 때에 버팀이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증(自證)
성경이 자기 안의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낸다는 뜻. 이 장의 논증은 이것을 전제로 한다.

뒤따르는 고려(consequential considerations)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보여 주는 논증. 오웬은 이것이 '굳은 의견'을 낳을 뿐 믿음을 낳지는 못한다고 본다.

신적·초자연적 믿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 성령이 일으키시는 믿음.

믿음의 조항(de fide)
이성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진리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

속죄·만족(satisfaction)
그리스도가 피로 죄의 값을 치러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일. 오웬은 이것이 영혼에도 참 '만족'을 준다고 말한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아버지·아들·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교리.

본질과 위격
본질은 하나님이 '무엇'이신가(하나), 위격은 '누구'이신가(셋)를 가리키는 말.

위격의 고유한 특성
한 위격에만 있어 다른 위격과 나눌 수 없는 특성.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낳으심, 아들은 나심, 성령은 나오심으로 설명된다. 오웬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영원 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뜻을 이루겠다고 맡으신 약속. 흔히 '구속 언약'이라 부른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성경의 신적 권위는 믿음의 조항이다. 개연적 논증은 그 기초가 될 수 없다.
- 그래도 성경 교리는 예배, 화목, 참된 복이라는 인류 공통의 혼란에 유일하게 끝까지 답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라는 강한 증거다.
- 삼위일체처럼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는 처음엔 걸림돌이다. 그러나 따져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드러난다.
- 성경 전체의 일치는 한 지혜로운 저자를 가리킨다. 그 저자는 거룩한 교리로 보아 살아 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 이 모든 고려는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기초 위에서 시련의 때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4편 · 기적·전통·이성은 어디까지 증거인가 · 변증의 자리
- 성경론 18편 · 성경으로 충분한가 · 충족성, 새 계시와 전통
- 성경론 20편 ·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 해석의 규칙과 최종 재판관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